

# 한국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북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기혁\*

## Progress and Prospect of Research on North Korea in Korean Human Geography

Kim, Ki-hyuk\*

**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의 인문지리학에서 북한과 관련된 학술 성과와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 지정학과 통일국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북한 지리교과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리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는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신지정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경제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지역개발과 통일 이후의 남·북한 경제 통합을 다룬 논문들이, 사회·문화지리 분야에서는 탈북민, 지명,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에 대한 접근시각은 지역연구와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중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국토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반도를 단일 공간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지리학의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남·북한 국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와, 분단의 상징인 DMZ를 대상으로 과거 생활공간에 대한 문헌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학은 통일 이후 새로운 한국학의 중심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북한학, 지정학, 휴전선, 접경지역, 개성공단, 나진선봉지구, 금강산, 지리교육, 북한지명

**Abstract :** This study is to review research issues on North Korea and unified territory in terms of topics and approach method in Korean human geograph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Before 1980's, topics on political geography, such as geopolitics or unified land, were the main stream in research. In 1990'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access to material which was published in North Korea, scope of research was widened especially in geography education. After 2000's with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scope of topics were more expanded in all field of human geography, for example, critical geopolitic in political geography, Gaecheon Industrial Complex, Najin-Seonbong region in economic geography, place names, Geumgangsán, North Korean defectors in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The approach method of toward North Korea is fall into two categories. One is regional geography and the other is the unified land. In the latter approach, topics on the regional structure after reunification or on the life adaptation of defectors in South Korea etc. were studied. After unification of land, new Korean Studia will be established and human geographers should make ready for this. Before unification, research on the land in north Korea should be proceeded in terms of historical geography.

**Key Words :** North Korean studies, geopolitics, DMZ, border region, Gaecheon Industrial Complex, Geumgangsán, geography education, place names

이 논문은 <2015지리학대회>(2015. 11. 6)에서 발표된 「통일준비를 위한 인문지리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hkim@pusan.ac.kr

## 1. 들어가면서

### 1) 북한 연구와 지리학

국토 분단 이후 남한의 지리학자들을 힘들게 하였던 단어는 ‘북한’이었으며 동시에 희망을 갖게 한 단어는 ‘통일국토’였다. 국토의 구조를 왜곡시킨 분단에 대해 ‘통일(re-unification)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은 ‘분리된 국토의 합침 혹은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의 변화와 함께 여러 통일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것이 분단 국토의 현실이다(류우익, 2010).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통일 논의는 북한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국내외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리하며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은 금기시된 용어였으며 논의 자체가 금지되었다. 1960년대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 논의가 일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제3공화국 이후에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권력구조, 남북 대립과 국제적인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들어 유신시대가 막을 내리고 서구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 북한 연구에서 비교정치학을 적용하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북한 연구는 냉전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실증적인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북한의 원전 자료들이 남한으로 유입되고, 잊히거나 감추어졌던 현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북한 연구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연구기관이 늘어나고 연구물도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성과물이 방대하게 나오기 시작하였다. 연구 주제도 기존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분야에서 벗어나 문화·교육·언어 등과 탈북민 등을 다루는 미시적인 주제로 확산되었다(고유환, 2015).

이와 같은 시기별 연구동향을 볼 때 북한학은 지역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측면과 통일을 당위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와 삼는 가치 측면이 중첩되면서 진행되었으며, ‘북한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의 성격,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적인 연구의 성격, 통일 문제에 대한 내용 측면을 다루는 통일학의 성격, 남·북한의 반쪽 역사와 지리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학’(혹은 국토학)이라는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정영철, 2007).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학의 연구 성과는 많으나<sup>1)</sup>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보고서 수준의 연구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관련 연구 기관과 대학의 관련 학과는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학이 당면한 이와 같은 위기의 원인은 실용적인 학문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에서, 연구 결과물 수준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연구의 한 측면인 지역학이 지니는 종합학문(혹은 ‘학제적 연구’)적인 지식 구조의 결여에서 비롯된다(홍민, 2007).

한반도에서 통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토 통합이며, 정치적인 통합은 이 과정의 일부이다. 이는 통일 준비의 논의가 통일국토라는 지역학의 내용을 빼고서는 불가능함을 보여준다(임현진·정영철,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연구를 전통으로 하는 지리학은 북한과 통일국토 연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지리학에서 북한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북한 원전 자료 부족과 현장 답사가 불가능하여 실증적인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기인한 점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북한학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통일국토론보다는 한민족 공동체론을 근거로 하였고(김성민·박영균, 2013), 이 때문에 통일국토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통일 이후에나 필요한 논의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통일국토론은 북한 연구의 주변부에 자리 매김하게 되었고 북한학 분야의 연구 소개에서도 지리학이 독립된 분야로 거론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sup>2)</sup>

이와 같은 어려운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에서는 분단 직후부터 지리교육과 지도 제작을 통해

북한 지리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고, 1980년대부터는 학술대회, 단행본 및 논문 출간을 통해 여러 주제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리학계에서는 이들 연구물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최근 2015년에 개최된 지리학대회를 통해 비로소 시도된 바 있다.<sup>3)</sup> 본 연구는 한국의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북한·통일국토와 관련된 연구 성과의 내용을 분야별로 검토하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지리학이 북한학의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여 북한과 통일국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연구자료 및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의 연구자료는 인문지리학 분야<sup>4)</sup>에서 북한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학술논문, 박사학위 논문 및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학술논문의 경우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지로는 지리학계에서 발행된 정기학술지, 지리학자가 투고한 타분야 학술지, 대학 및 지리학 관련학과에서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이 지리학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학술대회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미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지리학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단행본의 경우는 지리학자들에 의해 출간한 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연구 보고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논문 검색은 정기 학술지와 RISS, KISS 등 학술정보 DB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동일한 학자에 의해 발표된 유사한 주제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 결과 연구물은 155편이 정리되었으며(표 1) 이 중 학술지 논문은 118편, 학술대회 논문 25편, 학위논문 4편, 단행본이 8편이다.<sup>5)</sup>

논문과 단행본은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정치지리(지정학·통일국토론, 경계·접경지역, 독일통일), 경제·도시지리(농업·농촌, 산업·지역개발·경제개발특구, 인구·도시), 사회·문화지리(피난·탈북민, 지명, 금강산 관광, 영화·소설), 지리교육(지리교육 및 남·북한 비교) 및 북한 지리학 동향 등의 5개 분야로 분류되었다. 각 분야의 논문은 발행 시기, 주제 및 연구자료,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논문의 발행 시기는 기존의 북한학 연구(정영철, 2007; 고유환, 2015)를 바탕으로 1989년 이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년 이후로 구분하였고, 통계 수치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 2. 학술활동 개관

### 1) 학술대회 및 단행본

지리학계에서는 북한을 주제로 개최된 특별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은 표 2와 같다. 1988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관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토구조의 재편성」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통일 이후의 국토 구조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1995년

표 1. 연구자료: 시기별 북한 관련 연구물

발행 시기	~1989	1990~1999	2000~2009	2010~	계
학술지 논문	8	26	63	21	118
학술대회 논문		4	8	13	25
(박사)학위논문			2	2	4
단행본		1	4	3	8
계	8	31	77	39	155

표 2. 지리학계의 북한 관련 학술대회

연도	학술대회 및 주제
1988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창설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토구조의 재편성
1995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심포지엄 (주제) 분단 국토의 현실과 통일 국토의 미래상
1999	한국지리학회: 북한지리학 분과
2001	대한지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주제) 북한 국토의 이해와 개발
2001	대한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특별분과 (주제) 북한 변경지역의 변화와 지역 특성
2015	지리학회 (주제1) 통일시대, 접경지대연구 (주제2) 통일시대, 지리학연구 (주제3) 한반도 통일국토 구상 (주제4) 동아시아 지정학의 재발견

에는 대한지리학회 주관으로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국토의 미래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이 건영(1995), Eckart Dege(1995), 류우익(1995)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99년에 개최된 <제1회 한국지리학회>에서는 「북한지리학」 분과가 운영되어 문순철(1999), 곽영호(1999)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1년에는 대한지리학회 주관으로 「북한 국토의 이해와 개발」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한국, 중국, 일본학자에 의해 각각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열린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북한 변경 지역의 변화와 지역 특성」 주제로 특별 분과가 조직되어 녹둔도, 나진·선봉, 단동시, 백두산을 대상으로 5편의 지리학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5년에 개최된 지리학회에서는 북한·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시대, 접경지대연구」, 「통일시대, 지리학연구」, 「한반도 통일국토 구상」, 「동아시아 지정학의 재발견」의 분과가 설치되어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지리학에서 북한과 통일국토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소개됨으로서 인문지리학에서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에서 북한·통일국토와 관련한 주제로 취득한 박사 학위논문은 4편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지리교육 분야에 하태기(2000)(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지리 분

야에 신성희(2006)(서울대학교), 오인혜(2013)(서울대학교), 장윤정(2013)(서울대학교)이 있다.

북한 관련 연구 성과를 담은 단행본들로서는 정치 지리 분야에서 접경 지역을 다룬 박삼옥 등(2005)과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를 연구한 이기석 등(2012)이 있다. 이외에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도시 네트워크를 다룬 이옥희(2011)와 DMZ를 다룬 김창환(2011)의 연구가 있다. 경제지리 분야에서는 황만익·이기석(2005), 박삼옥 등(2007)이 있으며, 문화지리 분야에서는 북한 지명의 유래를 지리학자들이 집필한 국토지리정보원(2013)의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 I·II』가 있다.

## 2) 학술지 논문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발표된 북한 관련 학술지 논문을 시기별로 보면, 1989년 이전에는 8편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26편, 2000년대에는 63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21편이 발표되었다(표 1 참조). 1990년대의 급격한 증가는 냉전체제의 붕괴,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북한 관련 연구 폭의 확대와 지리학에서 북한 관련 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에 기인하며, 2000년대의 증가는 남·북한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표 3과 같다. 총 31종의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며, 그중 지리학 관련 학회지는 13

표 3. 북한 관련 논문 수록 학술지(편수)

분야(종수)		발행 기관(수록 편수)
학회 학술지	지리학 분야 (13)	『대한지리학회지』(17), 『국토지리학회지』(14), 『한국지역지리학회지』(11), 『한국사건지리학회지』(7), 『문화역사지리』(7),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5), 『공간과 사회』(4), 『한국도시지리학회지』(3), 『한국경제지리학회지』(3), 『한국지리정보학회지』(2), 『관광지리학』(1), 『한국GIS학회지』(1), 『한국지형학회지』(1),
	타 분야 (9)	『사회과교육』(6), 『아세아연구』(1), 『한국학연구』(1), 『국제문화연구』(1), 『한국동북아논총』(1), 『북한』(1),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1), 『관광정책학연구』(1) 『LHI Journal』(1), 기타(1)*
대학논문집(9)		(서울대)『지리학논총』(7), (서울대)『지리교육논집』(6), (교원대)『통일교육연구』(4), (경상대)『민족통일논집』(5), (경상대)『마르크스주의연구』(1), (청주대)『학술논문집』(2), 『교육과학연구』(1), 『청주지리』(1), (대구대)『사회과학연구』(1),

\*기타: 홍이섭·조지훈편, 1963, 20세기 한국, 박우사,

중, 타분야 학회지와 대학 및 관련학과 학술지는 각각 9종이었다. 지리학 분야 학회지의 수록 편수를 보면 『대한지리학회지』가 17편으로 가장 많으며, 『국토지리학회지』에 14편,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11편이 있다. 이들 3개 학회지에는 학술지 성격상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전문분야 학회의 학술지의 경우에는 논문 주제의 차이는 있으나 뚜렷한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리학자의 논문이 실린 타분야의 학술지로는 『사회과교육』과 『아세아연구』, 『한국학연구』, 『국제문화연구』, 『한국동북아논총』 등이 있다. 이 중 『사회과교육』에 6편이 수록되어 가장 많으며, 이들 논문은 대부분 북한 지리교육을 주제로 발표된 글이다.

대학의 지리학 관련 학과의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 편수를 보면, 『지리학논총』(서울대 지리학과)에 7편, 『지리교육논집』(서울대 지리교육과)에 6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학의 연구소 발행 학술지로는 교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의 『통일교육연구』에 4편, 경상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의 『민족통일논집』에 5편, 『마르크스주의연구』에 1편이 게재되어 있다.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 전공은 표 4와 같다. 인문지리학을 전공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93편으로 가장 많으며, 자연지리학 전공 학자가 농업, DMZ, 지명 등의 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17편이 있다. 지역계획, 경영학 등 타 분야 학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은 8

표 4.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전공 및 연구 유형(편수)

제1저자 전공*	단독·공동
인문지리학	단독(80), 공동(11), 타분야와 공동(2)
자연지리학	단독(10), 공동(7)
타분야**	단독: 지역계획(2), 지역학(1), 기타(1) 공동: 지역계획(2), 경영학(2)

\* 저자 전공은 『2014회원명부』(대한지리학회)에 의거함. 지리교육 전공자의 경우 제2전공에 따랐음.

\*\* KRI의 연구자 정보에 의거함

편이 있다. 이들 논문 중 공동연구로 수행된 논문은 인문지리 전공학자의 경우 13편이다. 이 중 지리학계 학자와 공동 연구한 논문이 11편, 타 분야와의 공동연구는 2편이다. 자연지리 전공 학자의 논문에서 공동연구는 7편, 다른 분야의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공동연구는 4편으로 인문지리 분야에 비해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학술지 논문의 분야별 발표 시기는 표 5와 같다. 1989년 이전까지 발표된 8편의 논문에서는 정치지리가 4편, 사회지리가 3편이 있다. 1990~1999년에 발표된 26편의 논문에서는 정치지리가 1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리교육도 10편으로 이전에 비해 발표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2009년에 발표된 63편의 논문에서는 정치지리가 26편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 비해 높은 증



표 5. 학술지 논문의 분야별 발표 시기

분야	~1989	1990~1999	2000~2009	2010~	계
정치지리	4	10	26	4	44
경제·도시지리	1	3	14	6	24
사회·문화지리	3	2	11	8	24
지리교육	-	10	10	1	21
북한 지리학 동향	-	1	2	2	5
계	8	26	63	21	118

가 추세를 보였다. 경제·도시지리와 사회·문화지리도 각각 3편과 2편에서 14편과 11편으로 높은 증가 수치를 보인다. 지리교육에서는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 발표된 21편의 논문 분야를 보면 정치지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사회·문화지리 분야의 논문 비율이 증가하였다.

### 3. 분야별 연구 주제와 내용

#### 1) 정치지리 분야

정치지리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의 연구 주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을 다룬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국토론 6편, 휴전선(DMZ)과 북방한계선(NLL) 7편, 북방 국경이 3편, 접경 지역이 10편,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논문이 6편이 있다.

##### (1) 지정학 및 통일국토론

###### ① 지정학

지정학은 인문지리학에서 북한·통일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다루어진 주제이며, 관련 논문을 가장 먼저 발표한 학자는 형기주(1963)로 평가된다(임덕순, 1996). 그는 『20세기 한국』(홍이섭·조지훈 편)에 수록된 「국토통일-지정학상의 가능성」을 통해 지정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 미

국과 소련의 양극화된 시대 하에서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단기간에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은 경제적 자립과 폭넓고 신축성 있는 외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의 지정학 연구는 임덕순(1969)의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로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S. B. Jones의 통일장이론(Unified Field Theory)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의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한국 휴전선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1972)를 통해 휴전선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그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휴전선은 발생학적으로 볼 때 전형적 부가 경계, 형태적으로 혼성 경계, 폭이 일정한 경계대, 기능적으로 이념적 경계이며, 군사 물리적인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압적 경계임을 밝혔다. 이 논문은 휴전선을 대상으로 정치지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0년대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류우익(1993)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권」에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체인 동북아권(Northeast Asian Rim)을 기대하면서 황해권과 동해권의 부분권(sub-rim) 및 4개의 발전거점(동경, 서울, 북경, 상해)을 상정하였다. 이 논문은 과거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하였던 과거의 지정학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추세를 맞아 경쟁과 협력의 지정학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논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0년대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의 논의는

더욱 활발하여 졌다. 최병두(2003b)는 「신제국주의, 미국의 신안보전략,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에서 제국주의 개념을 하비(D. Harvey)가 제안한 '권력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규정하고, 제3단계인 신제국주의 단계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해외정책에서 동아시아, 특히 북한과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현재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종래 냉전체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지정학적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속에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 신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미래」(최병두, 2004b)를 통해 환경위기에서 비롯된 '환경안보'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환경안보에 있어서 한계점은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의식의 미성숙과 상호 배타성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종래 지정학적 논의가 국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던 한계에서 벗어나 환경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상현·C Flint(2009)는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1990년대 나타난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을 소개하고 이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비판지정학의 입장에서 지정학은 특정한 발언(statement)나 재현(representation)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문화적 현상에 불과하며 현실주의 지정학의 기본 가정인 주체의 합리성을 거부하며 지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판지정학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시대의 지정학에 대해 비판적인 개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보면서, 냉전체제가 현재 진행 중이면서 긍정적, 부정적인 코드가 중첩된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정학 담론의 범위를 넓히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주장하였다. 이어서 지상현(2013)은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통해 그동안 지정학적 논리가 한반도의 생존 전략을 외부와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수동적인 해석이 확대·재생산되고, 이는 환경결정론적인 지정학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와 같은 고전 지정학적 명제는 국가의 외교 전략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국방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 담론들이 미디어에 의해 재생산되면서 국제협력이나 평화보다는 경쟁, 힘의 논리, 힘에 의한 평화가 현실적이라는 그릇된 사고를 주입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숙명이라는 명제는 더욱 정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 지정학이 어떻게 한국 지정학을 구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지리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혔다. 이 논문은 그동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한반도의 환경결정론적인 사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한반도' 용어가 지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논문은 강경원(2015)의 「'한반도'의 개념과 내재적 문제」이다. 그는 헌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조항이 지리교육적 측면과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반도' 용어가 헌법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반도' 용어가 형성된 맥락을 밝히고 자연 용어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간극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하는 지정학 담론은 더욱 확대되었다. 남종우(2014)는 「북한의 지정학적 담론과 그 변화」를 통해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담론(geopolitical discourses)을 검토하였다. 논문에서는 분단 70년 동안 북한은 주변 국가를 적(敵)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의 위협세력이라는 부정적 정체성을 구성하였으며, 영토 요구의 형태가 시기별로 다르게 전개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의 지정학 담론에서 내부 모순이 심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에 개최된 <2015년 지리학대회>에서 지정학과 관련된 연구로 지상현(2015)의 「지정학적 담론과 실천으로서의 반통일 담론의 구성」, 황진태(2015)의 「지정학, 안보화(securitization), 자연」이 발표되었다.

② 통일국토론

지정학 논의와 함께 국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국토 모습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류우익(1989)은 「국토의 재인식: 문제와 미래상」에서 통일 국토에 대한 미래상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국토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분단에 의한 일체성(Einheit)의 상실임을 지적하면서 분단을 영구화하고 조장하는 소모적인 경쟁 차원의 국토 구조 및 형질 변경이 지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 통일국토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류우익(1996)은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통해 통일 논의의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시켜야 하며, 단절된 남과 북을 하나로 통하게 하여 지역적 이질성과 격차를 줄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기관리 차원의 과제로 북한지역 경제의 안정, 지역 간 인구이동의 통제, 환경관리 대책의 신속 투입, 토지 관련 법제도의 확립, 남북 지역갈등에 대한 대비를 제시하였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 공간구조로서는 '진취적인 K-자형 구조축'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으로 '대경기만', 해양 지향의 '광역개발축', 신행정수도 건설, 3대 광역 환경보전지역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김덕현(1996)은 「통일을 준비하는 국토정비 방향」 논문을 통해 통일국토 정비 계획의 필요성으로서 불균형발전, 인구이동으로 인한 혼란, 자원의 대외 의존도 심화, 환경오염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희연 등(1997)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역의 국토공간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 연계성의 극대화, 남·북한 상호 보완성의 극대화, 국토 이용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국토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황희연(1999)은 「통일 대비 통합국토 정비 정책방향」에서 통일국토 개발 정책의 방향으로 1)개방적 국토경영과 국토 중심권 개발, 2)국토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신도시 건설, 3)대륙과 연안 지역을 연계하는 국토 골격을 형성하면서 통합국토의 환경 및 위기관리 대책으로서 토지제도의 효율적인 조기정착과

통일 국토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2015년 지리학대회>에서는 통일국토와 관련하여 최병두(2015)의 「분단 및 통일 담론과 한반도 공간계획」, 이상준(2015a)의 「통일한반도의 국토비전과 과제」, 김상태(2015)의 「통일 한국의 관광개발의 방향」 제하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2) 경계와 접경지역

① 휴전선(DMZ)·북방한계선(NLL) 및 북방 국경  
한반도를 둘러싼 경계에 대한 연구는 앞서 소개된 임덕순(1972)의 휴전선 연구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 이후로는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김두일 등(1993)은 「GIS기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선정 연구 서울-동두천간의 최적 방어지역 선정」 주제의 논문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군사 충돌 시에 지형요소와 접근로를 중심으로 최적 방어지역의 선정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군사 작전의 문제에 지리학 개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휴전선'은 'DMZ(비무장지대)'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었고, 연구 주제는 지정학적·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지리·환경 보존과 관련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김창환(2007)은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에서 DMZ 범위 설정에 대한 공간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GIS를 이용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 수치를 확인을 통해 관련 용어를 지리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DMZ내의 마을 연구」(2009)에서는 이곳에 있었던 427개의 마을 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형도』를 이용하여 티센폴리곤에 의해 마을 구획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이곳에는 집촌이 가장 많았으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산촌이, 교통로와 하천을 따라서는 열촌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다룬 논문으로는 김재한(2009)의 「서해 5도의 지정학적 고찰」이 있다. 이 글에서는 NLL 경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휴전협정 당시 획정의 부정확에서 기인되어 이곳은 남·북한



에서 서해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남북 간에 평화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곳은 공존의 공간이 아닌 해상 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북방의 북한-중국 국경과 관련된 연구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중국 접경 지역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sup>6)</sup> 이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녹둔도 연구이다. 이 섬은 과거에 조선 영토였으나 북경조약(1860) 이후 러시아에 귀속된 섬이다. 최한성·안재섭(2001)은 학술대회를 통해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안재섭(2004)의 「두만강 하류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와 이옥희(2004)의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중 이옥희(2004)의 논문에서는 현장답사를 통해 조선 초기에 구축된 토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확인하였고, 일제강점기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있기 전까지 조선인들의 농경 흔적을 통해 녹둔도가 실질적인 조선의 영역이었음을 밝혔다.

최근의 연구로 김재한(2015)의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와 한반도 북방경계선의 변천」에서는 조선과 중국과의 경계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에 대해 투과성의 문제, 통일한국의 법적 승계문제를 논하면서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합병되는 경우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국경조약이 계속 효력을 가지고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았다. 이 논문은 통일 이후 북방의 국경 문제에 대해 지리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에 의미가 있다.

## ② 접경지역

DMZ에 인접한 접경지역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90년대에 김재한(1996)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통일 후 북한의 대량 난민 문제에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휴전선에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북한 사회가 붕괴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북한 난민들의 남하하는 간선 교통로를 따라 접근성이 좋은 곳, 취업 기회와 기대 소득이 높은 곳, 소비 물가와 집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선택될 것이며, 난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개발된 특정지역에 집중 수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

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개발 계획 수립과 이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김재한(2001)은 「접경지역 지원법 운용과 지원 효과의 한계」를 통해 독일의 관련 법을 검토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이루어진 남한에서 접경지역 지원법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루었다. 그는 법의 제정 방향으로는 군사적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 생활의 애로를 해소하고 통일 전초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동시에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전조치의 내용을 담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김상빈·이원호(2004)의 「접경지역 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에서는 접경지역 용어의 문제, 접경지역 연구가 초기에는 경계가 가지는 장벽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해외 사례의 경우 접경지역이 고립되거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밝혔다.

접경지역의 변화와 개발과 관련한 사례지역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유진삼 등(1998)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방안」이 있다. 이 글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이 지역이 겪은 규제와 낙후가 국가의 책임임을 지적하고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류호상·김상빈(2004)의 「경기도 접경지역 환경부하의 공간적 특성」, 정은진 등(2004)의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정치적 환경과 경제기반」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물은 종합되어 박삼옥 등(2005)의 「사회·경제공간으로서 접경지역-소외성과 낙후성의 형성과 변화」 제하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강원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박경·김창환(2012)의 「강원도 양구 일대의 분지지형과 지오투어리즘 활용에 대한 연구」, 김창환(2013)의 「GIS를 이용한 강원 평화지역 지오파크(Geopark) 거점시설

최적지 선정에 관한 연구」와 김창환·이태희(2013)의 「민통선 내의 마을 분포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중 김창환(2013)의 논문에서는 지오사이트를 기반으로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 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접경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홍금수(2009)는 「역사지리의 파국적 단절과 미완의 회복」에서 파국이론(catastrophe theory)을 이용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을 사례로 이념 대립과 군사적 충돌에 의해 촉발된 불연속의 측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오랜 기간에 형성된 문화의 관습이 일순간에 치명적으로 와해되는 과정을 거쳤고, 다양한 출신성분을 가진 이주민이 뒤섞이면서 장소성이 상실되고 기억과 경관의 불협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접경지역의 역사·문화가 어떻게 파편화되고, 이에 따른 지역변화 내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다. 한편 최근에 이정훈(2015)은 「접경지대의 변화과정과 전망」에서 북한-중국, 미국-멕시코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의 접경지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독일 통일

1990년 유럽에서 통일 독일의 등장은 북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초기의 연구로 임덕순(1990)의 「양독 통일화 동태의 정치지리학적 고찰」에서 독일을 분단한 소련·미국·프랑스·영국의 4대 강국이 독일 통일에 대해 'NATO내 통독안'이라는 동일한 입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 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김재한(1999)은 「통독 이후 군용부지의 민수용 전환과 지역 개발」을 통해 독일이 통일 이후 국가현안으로 부각된 군수산업 해체 및 군사부지의 지정 해제, 군인 및 군속 노동자의 사회편입,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 경제 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독일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한국이 겪을 지리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독일 학자인 Eckart Dege(1995)는 「독일 지리학자의 시

선으로 본 남·북한 공간구조의 비교」 제하의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통일을 경험한 독일과 한국을 대상으로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공간 구조를 비교하였다.

통일 독일의 공간정책과 관련된 연구로는 안영진(2001)의 「독일 통일과 구동독지역에 대한 공간정책」이 있다. 독일 통일 이후 10년간 구동독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공간문제와 함께 공간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면서, 급진적 흡수통합이라는 통일의 기본 성격에 따라 '서독화'의 기조로 진행된 공간정책이 진행되었으나 내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낼 만큼 성장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2012)을 통해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과정,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구역 개편은 구서독 체제가 구동독 지역으로의 확대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추진되었으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행정단위의 규모나 역량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을 밝혔다.

김상빈(2003)은 「동독지역의 지역지리 최근 연구 동향」에서 라이프치히의 지역지리연구소 사례를 통해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지역의 지리학과 관련 연구소의 구조 개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통일 이후 북한의 지리 관련 학과 및 연구소의 개편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어서 발표된 「통독이후 동독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2004)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의 주택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족에서 과잉'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통일 이전에 동독이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발생된 공가 대책 중의 하나로 도심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년에 예상되는 출산을 저하가 주택수요의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2) 경제 및 인구·도시지리 분야

경제지리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제로는 농업·농촌과 지역개발이 각각 7편으로 가장 많고, 개성공단 등 개방지구를 다룬 논문이 5편이 있다. 인구·도

시 지리분야의 논문은 5편이 있다.

### (1) 농업·농촌 분야

북한의 농업을 다룬 연구는 비록 제한적인 주제가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현장 답사가 불가능하지만 위성영상 등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량과 토지이용의 추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한균형(1987)의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한 북한 쌀 생산량 추정」에서는 1975~1977년에 촬영한 북한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저수지 면적을 이용하여 생산량 추정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토지이용을 다룬 글로는 김두일 등(1998)의 「위성 영상을 이용한 황해도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연구」가 있다. 황해도 재령평야를 대상으로 1990~1995년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위성영상인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이 기간 동안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였고, 초지와 삼림, 수계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민부 등(2003)의 「북한 회령지역의 농경지 변화에 따른 토양침식 추정」에서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회령지역의 농경지 변화에 따른 토양침식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외에 이민부(2005)는 「북한의 농업」에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경지 면적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였으며, 이민부·최석주(2008)는 「북한의 인구와 농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발표하였다.

한주연(2005)은 북한의 「환경문제 및 농업침체와 인구변화」를 통해 북한의 인구추이를 분석하고 연도별 식량 수급 실태를 비교하여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이로 인한 무차별적인 비탈 개간으로 유발된 산림파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등의 동부 지역이 피해가 심각함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허만호(2014)는 「산림훼손에 대한 북한정부의 주민통제와 인권」에서 북한은 주체농업과 자연개조산업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의 농촌 주택과 관련하여서 문순철(2000)의 「통일 이후의 농촌주택 문제의 전망과 대책」이 있다.

논문에서는 북한 농촌 생활환경의 현황과 독일 통일 주거 환경 분야 대책을 바탕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의 재편, 농촌 주택건설의 시기별 투자, 고용 창출형, 주민 자력형 주거지 정비, 취락구조와 농촌 중심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지역개발, 산업 및 교통

북한의 지역격차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으로 이재하(2000)의 「북한의 지역격차와 균형개발 전략」이 있다. 북한의 토지법을 분석하여 지역 개발의 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북한의 「국토건설총계획」을 볼 때 1950년대부터 일관되게 지역 간의 균형개발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 격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도 평양과 다른 지역 간에는 극심한 지역 격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의 산업공간과 관련하여서는 2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그 중 황만익·이기석(2005)의 『북한 산업 지역 재조직 및 개방지역 확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의 산업지역이 재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나진·선봉지역의 개방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삼옥 등(2007)의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 협력방안-지리적 접근』에서는 북한 자연환경 특성의 자연지리적인 내용과 함께 지역구분, 육상교통망의 특성, 항만의 성장과 개발, 산업구조 및 산업 집적지 분석과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 결과,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이 자연환경의 파괴에서 기인되며 이 때문에 생태적인 건전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경제지리에서 부문별 연구로는 교통망, 철도, 관광 및 지리정보 DB 구축을 주제로 한 논문이 있다. 유진삼 등(2001)의 「남북 철도 복원에 따른 중·러·몽골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와 효과」에서는 한반도 철도망이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남·북한간 복원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하였으며, 복원을 통해 남북간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민족공동번영

을 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한반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의 연구로 김재진(2015)의 「북방시대 강원도 철도의 역할」에서는 장래 북방시대의 대비 차원에서 강원도의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이 조기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항공 교통을 다룬 글로서 곽영호(1999)의 「북한 민항공노선의 지리학적 고찰」에서는 남한에서 발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항공노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국제선 공항의 경우 평양 북쪽의 순안공항이 유일하며, 1992년 당시 국제 정기노선 중 평양~모스크바~베를린, 평양~하바로프스크, 평양~북경이 주요 노선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선 공항은 순안공항을 비롯하여 선덕(함흥), 원산, 신의주, 과일 등 33곳이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함을 밝히고 있다. 관광과 관련한 연구로는 권동희(1994)의 「통일 이후 한반도 통일관광교통 체계 구상」과 이장춘(2000)의 「통일한반도 경영을 위한 관광정치지리학적 연구」가 있다. 그중 이장춘(2000)은 관광을 매개로 한 세계한민족벨트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사공호상 등(2007)은 「북한지역 국토이용 DB 구축 연구」에서 지리정보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의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남북협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기초 사업임을 밝혔다. 이채문(2003)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과 러시아인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적 측면과 사회문화·심리적 측면에서 북한 노동력이 중국 노동력에 비해 훨씬 선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지역에 남한 기업이 진출할 경우 북한 노동력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취업 경험은 남북협력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임을 예상하였다.

### (3) 경제개방 특구: 개성공단, 나진선봉지구

북한은 1990년대부터 동북아시아의 국제무역, 금융, 관광기지로 만들기 위해 함경북도 나진과 선봉군 일대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착수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남북협력사업에 의해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 이 중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주제로 다룬 연구로는 이기석 등(2002)의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

대의 입지특성과 지역구조」가 있다. 중국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발행한 지형도와 위성영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 노동력과, 전력부족, 수출 가공업 등 업종과 공업 지대의 배치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성공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원호(2005)의 「개성공단 개발과 월경적 지역경제 발전 방향의 모색」에서는 홍콩-광둥 지역경제 통합과정 경험을 적용하여 개성 공단의 개발과 월경적 지역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이 갖는 외부 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역간 협력에 기초한 공조적, 내생적 지역 발전의 경로로 진입하여야 함을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허련(2011)은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성과와 함의」를 통해 공단의 단계별 개발과정을 소개하면서 부족한 노동력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정 철 등(2012)의 「개성공단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의 인지도 비교 분석」에서는 공단 입주기업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및 결정요인에 대해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그룹은 시설 및 노동요인, 공단 분양가, 전문가 그룹은 리스크 특히 안보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김동성(2015)의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에서는 경제 특구가 중국, 유럽 등의 제3국과의 접근을 통해 남북·북한 양국관계에 고착된 시각은 넘어서야 함을 제안하였다.

### (4) 인구·도시

북한의 인구와 도시에 관련된 연구는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인구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이간용(2000)의 「북한 지역의 인구지리적 고찰」이 있다. 1993년 북한에서 발표된 인구통계 자료와 남한에서 발표한 북한 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인구성장, 인구구조, 인구분포 및 밀도, 인구이동에 대해 지도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 신뢰도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



나 이 논문은 당시 북한의 인구 변동 추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소개한 한주연(2005)의 글에서는 북한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이용하여 인구 규모 분석을 시도한 결과, 식량난으로 인해 51만~69만 명의 인구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김기혁은 『한국지명 유래집-북한편(총론)』(2013)에서 UN이 발행한 『북한 인구센서스』(2008)를 이용하여 시군별 인구 분포와 도시규모를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도시 연구로서 평양의 도시 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석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2편의 논문이 있다. 남영우(2005)의 「사회주의 도시 평양」과 이어서 발표된 유경호(2007)의 「평양의 도시발달과 지역구조의 변화」 제하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평양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파악한 후 사회주의 시기에 평양의 행정구역과 시가지 변화 내용과 도시 구조를 지도와 사진, 위성 영상을 통해 연구되었다.

김기혁(2014)은 「도로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구조 변화 연구」에서 사회주의 선전 지명을 이용하여 평양의 도시구조 변화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체제 선전이 반영된 도로와 지하철 지명의 경로를 볼 때 일제강점기~1960년대까지 대동강 쪽을 향하던 도시 개발 방향이 1970년대 이후에는 금수산 태양궁전 인근에 조성된 혁명열사릉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 향하여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고구려 시기의 평양성 도시축과 유사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평양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현하고, 동시에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권력 정통성의 구현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성시와 함흥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안재섭(2013b)의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북한의 평성시와 함흥시의 도시 공간구조」가 있다. 남한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와 Google-earth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북한의 도시 공간구조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인위적인 공간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와 같은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로의 개편에는 한계가 있음을 예상하였다. 이외에 이기석(2003)은 「외관으로 본 북한 평양-정주-묘향 지역」을 통해 평양 일대의 답사 내

용을 소개하였다.

### 3) 사회·문화 지리 분야

이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 사회지리 논문은 10편으로 대부분이 피난·탈북민 주제를 다루고 있다. 문화지리 분야에서 발표된 14편의 논문에서는 지명, 금강산관광, 영화, 소설 등의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 (1) 사회지리

사회지리 분야에서 초기의 연구는 한국전쟁의 피난민을 주제로 시작되었다. 남상준(1982)은 「전북 김제지방의 북한 난민 개척촌에 대해 연구」에서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출신지의 통계 분석을 시도하고, 전북 김제 지방의 난민 개척촌을 사례로 인구 구조와 취락 형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착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난민들은 초기에는 원주민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 피난민들의 경로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인희(1986)의 「8·15와 6·25를 전후한 북한 출신 피난민의 월남 이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는 월남민들의 주거지가 대부분 휴전선 부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거리적 요인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에 기인되며, 동시에 기지촌과 군사시설에서 창출되는 고용 기회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유입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문남철(2004)은 「북한 이탈주민의 이주 요인과 이주 패턴 및 이주 경로」에서 탈북민의 이주 경로는 귀환 이주, 중국 및 러시아내에서 이동하는 순환 이주, 남한 및 제3국으로 이동하는 단계 이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 유입 경로는 중국 연안도시를 경유한 밀입국, 러시아, 중국-몽고, 중국-동남아시아 경로와 중국 주재 외교공관을 통한 방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이탈 주민의 발생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변경지역에서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탈북민의 남한내 거주지 분포에 대한 연구로는 최정호·박선미(2013; 2014)의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화 영향 요인」 등 2편이 있다. 연구결과 거주지 선택을 보면 2007년에는 부천, 성남, 수원 등 서울과 가까운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2012년에는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등 경기도 서남부권에 집중 거주하고,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연결망, 임대 아파트수, 제조·건설 업체수임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하여서는 혈연간, 북한 이탈 주민간, 정부 주도의 사회적 연결망, 한국인과의 연결망으로 구분되었으며, 거주지 선택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 내용을 다룬 논문으로 윤옥경(2009)의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글로서, 북한에 대한 교과 지식은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친밀감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탈북민들의 적응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박순호(2016)의 「대구·경북지역의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있다. 연구결과 나이가 들고 학교생활에 익숙할수록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는 남한 문화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탈북민이 지니는 고향의식을 주제로 한 연구로 오인혜(2007)의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가 있다. 논문에서는 탈북자를 실향민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고향의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탈북자의 북한에 대한 고향의식은 정서적 애착과 함께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에 거주할 때 고향애가 가장 높았으며 제3국에 체류할 때보다 남한에 입국한 후에 고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서 박사학위 논문인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 유형과 대북 NGO 특성」(2014)에서는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토포필리아와 토포포비아, 민족과

타자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장소감을 유형화하였다. 연구결과 장소감의 유형에 따라 북한 지원과 관광 사업에 대한 태도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오인혜(2016)의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의 사회적 의미」에서는 탈북자들의 토포포비아가 토포필리아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 (2) 문화지리

### ① 북한 지명

분단 이후 북한에서 지명의 변화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지명이 적지 않게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명 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로 이영택(1994)의 「북한의 지명 변혁과 지명의 유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한에서 발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복 이후 북한 지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지명 유형을 족벌지명(예: 김일성광장), 호전지명(예: 승전동), 위장지명(예: 평화리, 개혁리), 산업증산지명(예: 광답리, 과일군), 모순지명(예: 학송리), 우리말지명(예: 새길동)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언어가 이데올로기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상에서 생활화된 지명을 단시일 내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지명 연구 주제는 다양해졌다. 이민부·전종한(2005)의 「‘추가령’ 지명에 관한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에서는 ‘楸’ 지명이 갖는 장소적, 지역적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개성시 관광이 시작되면서 도시지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영희(2006a; 2006b)는 「북한 개성특급시 역사 문화지명의 유래와 특성」 등 2편의 논문에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고장이름사전』(2002)과 탈북민과 개성 관광 중에 접촉한 북한 안내원, 개성공단 내의 북한 근로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성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명의 형태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김기혁(2013)의 「북한의 지명 관리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북한의 지명 정책이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지명 명명에서 체제 선전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과정을 밝혔다. 또한 1960년대 지명 조

사 사업 이후 출간된 북한 자료와 북한 지명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명 설명에서 김일성 우상화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② 금강산 관광

분단 이후 북한 지역의 장소 소개에 대해서는 이찬(1984)의 「백두산의 자연지리적인 조건과 인문환경」을 비롯한 글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발표되었으며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기석 등(1999)의 「금강산의 장전향의 지리」에서는 금강산에서의 2일간 관광에서 관찰한 장전향, 온정리 관광객의 이동 도로의 주변 모습을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송호열(2004)의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금강산 관광자원과 관광 편의 및 시설을 분석하고 이 사업이 남북 긴장완화라는 긍정적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밝혔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문화지리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한 학자는 진종현(2005)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 분석」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신문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특정한 자연 경관이 여러 집단에 의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경험되고 정치적으로 동원되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종래 금강산과 관련한 연구에서 경제 및 정치적 의미로만 제한되었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신성희(2006)는 금강산 관광 특구 개발을 사례로 「장소의 선택적 조성과 자산화」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금강산 관광은 특정 소수계층의 전유물로 되었고, 북한영토를 체험하는 독특한 관광상품이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주변과 차단된 점(點)적 공간개발과 선별된 접근로의 복원을 통한 선(線)적 연계라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관광객의 시선을 제약하고 있으며, 특정 회사의 배타적인 권리 확보를 통해 수익구조로서 안정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고유한 장소요소로 삼았던 금강산의 상징성 및 장소 신화는 점차

퇴색되고, 관광객의 시선도 제약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로서 신성희(2016)의 「금강산에서 전승되는 아름다움의 장소신화」에서는 조선시대의 금강산이 사회적 재현을 통해 한반도의 명산이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③ 영화·소설속의 기억

문화지리 분야에서 지명, 금강산 관광 외에도 전쟁과 분단에 대한 기억, 북한 실상을 재현한 영화나 소설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쟁의 기억에 대한 연구로, 임은진(2012)은 「6·25 전쟁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기억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장소는 낙동강, 인천,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기념의 장소와 공간이었고, 역사적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났던 현장일 경우 기억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를 더욱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화를 대상으로 전쟁, 분단을 다룬 논문으로는 2편이 있다. 장윤정(2014)의 「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에서는 남한의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월미도' 영화에서 나타난 장소성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상륙군의 관점에서는 진입에 따른 '이동'으로, 방어군 관점에서는 이동이 없는 '고립'으로 표현되며, 이에 따라 인천은 이동과 교류의 장소로, 월미도는 방어와 고립에 초점을 맞춘 장소로 재현되었음을 밝혔다.

분단을 소재로 다룬 영화에 대한 연구로는 정현주·정희선(2014)의 「남북분단을 소재로 한 국내 영화속 정치적 담론과 장소의 재현」이 있다. 논문에서는 대통령 집권기별로 대북정책의 기초와 남북관계, 대북 인식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영화 속에 나타난 장소 재현의 다양화·유연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영화에는 남과 첩보원과 북한 이탈 주민을 빈민촌, 재개발지역, 고시원, 홍신소 등을 영화의 공간적 배경에 등장시켜 이들 장소가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의 타자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 소설을 이용해 북한 사회를 연구한 주제로 이광률(2005)의 「북한 소설 '대학시절'에 나타나는 지리학 및 지리관」이 있

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지리학부 간석지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대학시절」 소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대학의 지리학부 편제와 교과과정, 국토와 지리학에 대한 관점의 해석을 시도하여 북한 지리학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지리교육 분야

북한 지리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북한 지리교과서의 접근이 용이해진 1990년대 이후이다. 총 21편의 논문 중 북한의 지리교육 내용을 다룬 논문이 7편, 남·북한 지리교육의 비교가 6편, 남한 지리교육에서의 북한·통일 관련 내용의 논문으로 8편이 있다.

##### (1) 북한 지리교육

북한 지리교육 분야의 전반에 대해 소개한 논문으로는 남상준(1993)의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이념으로서 이념 중심의 홍(紅)과 실용 중심의 전(專)을 소개하고 북한은 선홍후전(先紅後專)의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이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민부(2004)의 「북한의 지리교육」에서는 지리교육 과정의 변천을 소개하고, 학년별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북한 지리교육의 특징은 집단적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주의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내용상 자연지리학이 강조되고 인문지리 분야에서는 경제지리가 우선되면서 지역분석을 위한 지도학, 지리정보학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으로 손용택(1993)의 「북한의 『조선지리』 교과서 분석」에서는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서술된 남한 지리의 내용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밝혔고, 한봉희(1993)는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세계지리에 대한 서술은 각 대륙에서 인문지리 서술 내용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서술함으로써 남한과는 다른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 전(2005)의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일 고찰」은 「북한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분석」(1988)의 후속 논문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과 2000년에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학습목적과 목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일방적 찬양, 남한 체제의 비방 내용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여, 남·북한 지리교과서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등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위상이 남한에 비해 매우 높으며, 지리 과목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한 사상과 지식을 주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 북한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지명을 이용하여 지리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로 최석주(2003)의 「북한의 지명-북한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가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2~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인문 지명과 자연지명을 분석한 결과 서북지방 단원에서 지명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가 지명으로는 중국, 러시아보다 미국, 일본의 기재 빈도가 높으나 대부분 적대적인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남·북한 지리교육 비교

남한과 북한의 지리교육을 비교한 논문으로 이양우(1993)의 「북한의 지리교육-남북한 지리교과서 비교분석」이 있다. 연구결과 남북교과서는 이념에 의해 내용의 차이가 유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로써 지역구분에서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 교과서에서는 중부 지방을 황해도와 강원도, 충청도를 서남지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도의 통일 의지를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석진 등(2000)은 「북한 고등 중학교 지리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 북한 지리교육의 이념, 목적과 함께 목표에서 지도, 자원, 기후, 지형, 해양,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남한의 지리교육 과정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경우 고등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지리가 독립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교과서에 국토지리와 자연지리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습, 실험이 강조되어 실

제적인 기능 향상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태기(2000)는 「남북한 중등학교 지리교육 연구」 주제의 학위논문을 통해 남·북한 지리교육의 목적과 특성, 사용 개념, 지명 및 용어, 학습 자료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에서는 한국지리를 더 많이 다루고 있으며, 국사와 더불어 한국지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지명이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으며 지리용어의 경우 우리말 표기형, 서술형, 한자와의 합성형 용어로 구분됨을 밝혔다.

김재완(2003)의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크기, 전체 쪽수 및 배당시간, 단원 전개와 명칭, 기후 구분 방법 등의 내용적인 측면과 지리 용어에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손용택(2004)은 남·북한 지리교과서에서 나타난 북미 지역에 대한 서술 내용을 비교하여, 북한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쿠바의 서술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노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 남한 교과서에서는 미국의 개척 과정, 세계의 중심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서술 내용이 담겨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 김진영(1998)의 「남·북한 자연지리 용어의 비교」에서는 남북한 교과서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지리용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용어에서는 표준어(문화어) 원칙에 따라 풀어쓰거나 고유어 혹은 절충 형태를 띠고 있으며, '두벌농사'와 '이모작'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북한 자체 내에서도 체계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3) 남한 지리교육에서의 북한·통일국토론

남한의 지리교육에서 가르치는 북한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교과교육에서 북한 단원의 구성 방법과 학생들의 통일외식 제고 방법으로 나뉜다. 북한 단원과 관련된 연구로는 윤옥경(2004)의 「북한지역에 대한 초·중등학교 학습자료 개선방안」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한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지리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 급별 학습방향을 제시한 후 북한 개방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 자료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개방지역은 최근 북한 지역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북한 변화

를 국제 정세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한반도를 국제적인 스케일에서 파악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강창숙(2008)은 「중학생들의 '북부지방' 이해에 대한 특성과 지역이미지」에서 '북한' 대신 '북부지방'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 이해 수준과 이미지, 지역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이 가지는 북부 지방의 이미지는 '북한'으로 고착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지리교육에서 영토로서의 명확한 중점 없이 제시되고 있는 '북부지방' 용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지리 교재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민부 등(2003)의 「Landsat 영상을 활용한 지리학습교재 구성 방안」에서는 Landsat TM 및 ETM 영상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북한 관련 단원의 교재 제작과 수업안 구성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영상을 이용한 교육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영상 자료가 충분히 보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남한 학생들의 통일 외식 제고와 관련한 글로 권혁재(1991)의 「국토지리-왜 배워야 하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지방의 실상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중등교육에서 한국지리 과목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감정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재한(1994)은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통일지향적 개선 방향 모색」에서 남·북한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의 독립적 구조를 지적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통일 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현재를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기술을 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지리는 한반도 통합 서술, 인문지리는 분리하여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통일 국토를 다루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윤옥경(2010)은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 통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와 상관관계



가 있으며, 시사적인 이슈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지리교육에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한병선(2004)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리학습 콘텐츠 개발」에서는 통일교육과 남북한 갈등 해결에 있어서 지리학적인 콘텐츠가 유용함을 밝히고, 이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대학생들의 북한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김덕현·이병희(1997)의 「북한지리 교재연구」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국토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한 북한지리 교재 편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5) 북한 지리학 동향

분단 이후 북한의 지리학 연구 동향은 남한 지리학계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이간용(1998)은 「북한의 지리학 연구 동향」에서 북한에서 발행한 지리학 관련 논문집 분석을 통해 북한 지리학의 주요 분야는 자연지리와 경제지리, 지도학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수문, 토양, 공업입지, 측지가 주요 주제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 지리학 논문의 형식적인 특성에서는 연구 목적이나 당위성의 근거를 김일성 교시나 어록에서 찾고 있어 이상화와 교조화를 학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기석 등(2002)의 「북한 지리학 연구동향에 대하여」에서는 1960~2000년 사이에 북한에서 발행된 지질과 지리 학술지의 출판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 지리학자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논문 발표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야별 연구 동향으로는 김창환(2007)의 「북한의 GIS 연구동향 분석」이 있다. GIS 관련 잡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연구는 측지·측량, 지도 제작, 기상, 농업, 재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GIS정책과 유통, 교육, 인터넷 GIS, 교통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자료는 기상위성과 Landsat 영상 등 주로 중·저해상도의 위성영상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학문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함을 밝혔다.

지명 연구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된 김기혁(2013)의

글에서는 북한의 지명 연구는 언어학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물들은 주로 『문화어학습』 등의 잡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의 지리학 동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나 이기석(2014)은 「혼돈기의 지리학자 정갑(鄭甲, 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을 발표하였다. 정갑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남북된 학자로서, 남북 이후 북한에서 지리학자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 4. 요약 및 맺음말

이 논문은 분단 이후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북한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많은 연구물들이 발표되어 북한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논문 수는 결코 적지 않으며, 정치지리, 경제·도시지리, 사회·문화지리와 지리교육, 지리학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증적인 북한 연구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한 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글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문지리학에서 북한 연구의 잠재력과 외연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 1) 연구 주제와 접근 방법

연구 주제의 시기별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 지정학과 통일국토의 모습, 한국전쟁의 피난민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반도 주변의 정치 환경이 급변한 1990년대는 지정학, 통일국토론, 독일 통일 연구와 함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북한 지리교육의 내용과 남북한 지리교육을 비교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북 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인문지리학의 거의 전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치지리에서는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신지정학과 DMZ와 접경지역, 독일 통일



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제지리에서는 북한의 지역개발과 산업구조, 통일 이후의 지역 통합을 다룬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사회지리에서는 탈북민, 문화지리 분야에서는 지명,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영화·소설, 탈북자들의 북한 고향에 대한 애향심 등 다양한 주제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나타난 북한 연구의 시각은 북한 지역을 통일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실증적인 지역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구분되며, 이는 북한학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주제로는 통일 이후 국토 지역구조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지정학, 휴전선(DMZ)과 북방 국경, 접경지역을 연구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거의 전 분야의 논문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 보지만 접근방법에서 기존의 시각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남한 사회와 북한' 내용을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로는 지리교육에서 남·북한 비교와 남한의 북한 지리 교육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와 2000년대 이후 사회지리에서 탈북민 연구, 문화지리에서 금강산관광, 분단의 기억과 고향의식과 관련된 주제를 미시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해당된다.

북한을 실증적인 지역연구 대상으로 접근한 논문은 경제·도시지리에서 북한의 농업, 산업·교통 및 지역개발, 인구 및 도시 연구, 문화지리에서 북한의 지명 변화, 지리교육에서 북한의 교육 내용을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해당된다. 이들 연구는 북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지역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 방법도 내면적으로는 통일국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문지리학의 대부분 북한 연구에서 통일국토론이 보편적인 접근방법이 된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 지리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공간이 한반도 전체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북한 자료의 접근의 어려움에 따라 실증적인 연구의 제약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문지리학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연구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정치지리에서 비판지정학을 바탕으로 한반도 지정학의 재해석을 시도한 연구, 문화지리에서 지명 연구와 함께 신문화지리학을 바탕으로 한 금강산 관광의 해석, 탈북민과 애향의식, 영화속에 나타난 북한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인문지리학의 북한 관련 연구의 외연적 확장과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통일국토를 위한 연구 과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또한 국토통일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국토 모습은 '한반도 위에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국토'로 '국토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유한다.

통일국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모습, 도시와 농촌에 곳곳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선전 경관과 지명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의 변화와 함께 한국의 지리학자들을 당혹하게 할 것이다. 지금 통일 과정을 예측할 수 없지만 다가 올 통일국토를 위해 지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1) 분단 이후 인문지리학의 북한과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의 폭이 좁았던 것은 객관적이기도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에 기인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지역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지리 교육과 지명 연구 등 일부 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한에서 발행된 지도와 위성영상,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일부 개방 지역의 현장답사와 북한에서 발행된 지리 관련 백과사전이 부분적으로 이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연구 주제의 다양함과 논의 수준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통일 시대에 인문지리학 연구의 폭과 깊이는 현장 자료와 함께 객관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문헌자료의 충실함에 비례한다. 그러나 현장 답사가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서 지리학 연구는 문헌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북한의 지명 정리 사업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북한 지리 자료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으며, 이들이 아직 북한 연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남한 사회에 공개된 북한 지도와 최근에 정부기관에서 구축한 지도, 위성 영상들은 북한의 지역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비록 북한 체제의 찬양으로 각색되어 있지만 북한에서 발행한 지리 사전류들도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분단 이전인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지리서와 지도들도 대부분 남한에 소장되어 있다. 인문지리학 분야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이용함으로써 북한 지리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통일 이후에 지리학에 가장 먼저 부여될 역할은 체화된 '분단 국토'의 이미지를 극복하여 통일국토가 공통의 뿌리를 가진 지리적인 공동체임을 한국 사회에 확인시키는 것이다. 국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통일국토가 동질적인 시·공간 속에 있어 왔음을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국토의 역사지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 산재되어 있는 북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북한의 각 지역들을 대상으로 분단 이전의 모습, 그리고 분단 이후~현재까지의 변화 내용을 정리·분석하는 연구가 통일 이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지역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 공동의 언어로 구축될 지리정보체계의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세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국토를 바로 잡아 비로소 진정한 제2의 국토 광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은 물리적으로 한반도를 가로 지르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DMZ가 지금 혹은 미래의 모습이 어떠하든, 과거에는 이곳이 우리의 평화로운 농촌의 삶이 이루어졌던 공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단 시대를 상징하는 경계인 DMZ는 통일 이후에도 보전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단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생활공간의 모습이 지도와 문헌을 이용하여 복원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 공간에 통일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질 수 있을 것이다.

낯선 북한과 함께 해야 할 통일 국토의 모습은 한국

의 지리학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통일 이후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될 '새로운 한국학'(혹은 한반도학)의 중심에 지리학이 있어야 하며 지리학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20세기에 식민지와 자본주의 도시 산업화로 일그러졌던 국토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일제 강점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지리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전통지리학과 분단 이후의 현대 지리학, 그리고 최근의 새로운 지리학의 흐름을 접목시키면서 함께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인문지리학에서 북한 연구의 정리를 시도한 이 글이 지리학의 만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리학의 성격상 워낙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어, 각 논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이르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이에 대한 보완은 이후의 과제로 미룬다.

## 주

- 1) 2000년 이후 북한학의 논문 발표는 비약적으로 팽창하였다. 2000~2006년까지 학술지 논문이 약 4,500편, 단행본이 1,200여 편이며 그 이전에는 각각 1,400여 편, 1,300여 편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영철, 2007).
- 2) 북한연구학회가 출판한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2012, 초판 1999)에서 지리학 분야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이의 예이다. 지리학과 인접한 분야로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의 고우환(2015)의 논문에서도 연구성과의 분야별 분석에서 지리학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 3) 2015년 개최된 지리학회에서 <통일시대, 지리학연구> 분과가 운영되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리학 연구의 방향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4) 본 연구에서 인문지리분야 논문은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저자의 전공이 자연지리학·GIS 등 다른 분야이나 논문 주제가 농업, 취락 등 인문지리 주제인 경우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지리교육 분야 논문의 경우 논문 내용과 저자의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 5) 한편 본 연구의 논문 수집과정에서 적지 않은 연구물이 누락될 수 있었음은 피할 수 없다. 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누락된 논문들은 차후에 보충하고자 한다.
- 6) 북방 국경과 관련하여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일대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역사지리 분야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

되었으나 북한·통일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어 본 글에서는 이의 제시를 생략하였다.

### 참고문헌

- 강경원, 2015, “한반도’의 개념과 내재적 문제,” 문화역사지리, 27(3), 1-17.
- 강창숙, 2008, “학생들의 ‘북부지방’ 이해에 대한 특성과 지역이미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2), 79-96.
- 고유환, 2009,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 29-71.
- 고유환, 2015,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4(1), 29-54
- 곽영호, 1999, “북한 민항공노선의 지리학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33(3), 173-183.
- 국토지리정보원, 2013,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 I·II, 대한지리학회.
- 권동희, 1994, “한반도 통일 관광교통 체계구상,” 관광지리학, 4, 373-390.
- 권혁재, 1991, “국토지리-왜 배워야 하나?,” 대한지리학회지, 26(3), 253-258.
- 김기혁, 2013, “북한의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14-30.
- 김기혁, 2014, “도로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구조 변화 연구,” 문화역사지리, 26(3), 33-54.
- 김덕현, 1996, “통일을 준비하는 국토 정비 방향,” 민족통일논집(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2(1), 5-16.
- 김덕현, 1997, “북한지리 교재 연구,” 민족통일논집(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3, 5-16.
- 김동성, 2015,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도로,” 2015년 지리학회 발표논문집, 39-39.
- 김두일·이형호·한옥, 1993, “GIS기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선정 연구 서울-동두천간의 최적 방어지역 선정,” 대한지리학회지, 28(2), 137-147.
- 김두일·한옥·정상조, 1998, “위성 영상을 이용한 황해도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연구,” 지리학연구, 32(4), 135-146.
- 김상빈, 2003, “동독지역의 지역지리 최근 연구동향: 라이프피히 지역지리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37(2), 91-105.
- 김상빈, 2004, “통독이후 동독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38(2), 127-142.
- 김상빈·이원호, 2004, “접경지역 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117-136.
- 김상태, 2015, “통일 한국의 관광개발 방향,” 2015년 지리학회 발표논문집, 124-124.
- 김성민·박영규, 2013, “통일학의 정초를 위한 인문적 비판과 성찰,” 통일인문학, 56, 85-113
- 김재완, 2003,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153-168.
- 김재진, 2015, “북방시대 강원도 철도의 역할,” 2015년 지리학회 발표논문집, 40-40.
- 김재한, 1994,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통일지향적 개선방향 모색,” 지리학논총, 23, 1-11.
- 김재한, 1996, “통일후 북한의 대량 난민문제에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 민족통일논집(경상대학교), 12(1).
- 김재한, 1999, “통독 이후 군용부지의 민수용 전환과 지역개발,” 대한지리학회지, 34(4), 435-448.
- 김재한, 2001, “접경지역 지원법 운용과 지원 효과의 한계,” 국제문화연구, 19(2), 청주대학교.
- 김재한, 2003, “한국 사회정치지리학의 조류변화,” 교육과학연구(청주대학교), 16(2), 127-145.
- 김재한, 2009, “서해5도의 지정학적 고찰,” 청대학술논문집, No 13 S-3, 1-26.
- 김재한, 2014,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와 한반도 북방경계선의 변천,” 청대학술논문집, No 24 S-8, 67-86.
- 김진영, 1998, “남·북한 자연지리 용어의 비교,” 청주지리, 13, 51-60.
- 김창환, 2007a,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454-460.
- 김창환, 2007b, “북한의 GIS 연구동향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4), 189-197.
- 김창환, 2009a, “DMZ내 사라진 마을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96-105.
- 김창환, 2009b, “DMZ와 그인접 지역의 지형경관 조사와 활용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17-327.
- 김창환, 2011, DMZ 지리 이야기, 살림터.
- 김창환, 2013, “GIS를 이용한 강원 평화지역 지오파크(Geopark) 거점시설 최적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3), 31-42.

- 김창환·김귀곤·최영은·김상식·신중열, 2010, “민통선, 비무장 지대(DMZ)일대의 식생에 관한 연구—동해 북부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13(6), 63-74.
- 김창환·이태희, 2013,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121-140.
- 김창환·정성훈·배선학,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과 지리공원—강원도 DMZ 지리공원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발표논문집, 21-23.
- 남상준, 1982, “전북 김제지방의 북한 난민 개척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지리교육, 12, 43-61.
- 남상준, 1993, “북한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26, 150-160.
- 남영우, 2005, “사회주의 도시 평양,” 한국도시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기요.
- 남중우, 2014, “북한의 지정학적 담론과 그 변화,” 2014 대한지리학회 발표논문집, 127-130.
- 데게 에카르트(E. Dege), 1995,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ye's of a German Geographer: The Comparison of Spatial Structure,”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 류우익, 1989, “국토의 재인식—문제와 미래상,” 지리학논총, 별호7, 7-18.
- 류우익, 1993,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권,” 대한지리학회지, 28(4), 312-320.
- 류우익, 1995, “통일국토의 공간구조 개편,”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 류우익, 1996, “통일 국토의 미래상: 공간구조 개편 구상,” 대한지리학회지, 31(2), 44-56.
- 류우익, 2010, “지정학적 화해를 위하여,” 지리학논총, 55-56합본, 1-8.
- 류효상·김상빈, 2004, “경기도 접경지역 환경부하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157-170.
- 문남철, 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요인과 이주 패턴 및 이주 경로,” 국토지리학회지, 38(4), 497-511.
- 문순철, 1999, “통일 이후 북한의 농촌 주택 문제의 전망과 대책,” 한국지리학회—북한지리분과—발표 논문집.
- 문순철, 2000, “통일 이후 북한 농촌 주택 문제의 전망과 대책,” 국토지리학회지, 34(1), 1-12.
- 박 경·김창환, 2012, “강원도 양구, 화천 일원의 분지 지형과 지오투어리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9(4), 97-108.
- 박삼옥·이원호·이현주·김상빈·정은진, 2005, 사회·경제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소외성과 낙후성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삼옥·허우공·박기호·박수진, 2007,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 협력방안—지리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순호, 2016, “대구·경북지역의 북한이탈 초등학교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168-179.
- 북한연구학회, 2012,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2판, 한울.
- 사공호상·서기환·한선희, 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 DB 구축연구,” 한국GIS학회지, 15(3), 323-333.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89,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토구조의 재편성,” 지리학논총 별호 7.
- 손용택, 1993, “북한의 『조선지리』 교과서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26, 168-182.
- 손용택, 2004, “남북한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의 체제 탐색과 대북미관,” 국토지리학회지, 38(3), 199-214.
- 송호열, 2004,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4(2), 1-35.
- 신성희, 2006, 장소의 선택적 조성과 자산화—북한 금강산 관광특구의 개발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성희, 2016, “‘금강산’에서 전승되는 아름다움의 장소신화: 사회적 자연과 명산의 여행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151-167.
- 안영진, 2001, “독일 통일과 구통독지역에 대한 공간정책,” 국토지리학회지, 35(3), 261-272.
- 안영진, 2012,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구동독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4), 445-456.
- 안재섭, 2004, “두만강 하류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러시아 하산 지역과 녹둔도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38(2), 155-165.
- 안재섭, 2013a, “북한 도시연구를 위한 도시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 검토,”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2), 21-33.
- 안재섭, 2013b,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북한의 평성시와 함흥시의 도시 공간구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161-176.



- 오인혜, 2007,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지리학논총, 49, 1-22.
- 오인혜, 2013,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양식-장소심리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인혜, 2014,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 유형과 대북 NGO 특성: 장소심리학적 접근,” 공간과 사회, 50, 118-157.
- 오인혜, 2016,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와 사회적 의미,” 공간과 사회, 26(2), 264-299.
- 유진삼·김추윤·권원기, 1998,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방안,” 국토지리학회지, 32(3), 17-44.
- 유진삼·김추윤·권원기, 2001, “남북 철도 복원에 따른 중·러·몽골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와 효과,” 국토지리학회지, 35(3), 283-296.
- 윤옥경, 2004, “북한지역에 대한 초·중등 학교 학습자료 개선방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327-341.
- 윤옥경, 2009,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6), 820-833.
- 윤옥경, 2010,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서울 지역 중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269-279.
- 이간용, 1998, “북한의 지리학 연구 동향,” 지리·환경·교육, 6(2), 127-139.
- 이간용, 2000, “북한 지역의 인가지리적 고찰,” 지리교육논집, 44, 44-53.
- 이건영, 1995,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공간구조,”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 이광률, 2005, “북한소설 ‘대학시절’에 나타나는 지리학 및 지리관,” 통일교육연구(한국교원대학교), 4, 59-69.
- 이기석, 2003, “외관으로 본 북한 평양 정주 묘향 지역,” 지리교육논집, 47, 36-46.
- 이기석, 2014, “혼돈기의 지리학자 정갑(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 지리교육논집, 58, 47-73.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영, 2002,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의 입지특성과 지역구조,” 대한지리학회지, 37(4), 293-316.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영, 2012,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기석·이옥희·최한성, 2002, “북한 지리학 연구동향에 대하여,” 지리교육논집, 46, 84-90.
- 이기석·최한성·강지영, 1999, “금강산의 장전향의 지리,” 지리교육논집, 41, 2015-01-14.
- 이민부, 2004, “북한의 지리교육,” 통일교육연구(한국교원대학교), 3, 119-141.
- 이민부, 2005, “북한의 농업,” 통일교육연구(한국교원대학교), 4, 85-92.
- 이민부, 2015,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지리학 연구,” 2015년 지리학대회 발표논문집, 107-108.
- 이민부, 최한성, 김남신, 신근하, 2003, “Landsat 영상을 활용한 지리학습교재 구성방안-고등학교 한국지리 북한 관련 단원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2), 17-28.
- 이민부·전종한, 2005, “‘추가령’ 지명에 관한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17(1), 47-65.
- 이민부·김남신·강철성 외, 2003, “북한 회령지역의 농경지 변화에 따른 토양침식 추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373-384.
- 이민부·최석주, 2008, “북한의 인구나 농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6), 709-717.
- 이상준, 2001, “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국토개발 전망,” 대한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3-116.
- 이상준, 2015a, “통일한반도 국토비전과 과제,” 2015년 지리학대회 발표논문집, 123-123.
- 이상준, 2015b, “북한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 LHI Journal, 6(2), 101-106.
- 이승욱, 2012,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 사회, 26(2), 132-163.
- 이승욱, 2015, “북한의 영역화, 개발구, 분권화,” 2015년 지리학대회 발표논문집, 260-260.
- 이양우, 1993, “북한의 지리교육-남북한 지리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과교육, 26, 129-149.
- 이영택, 1994, “북한의 지명 변혁과 지명의 유형,” 아시아 연구, 91, 41-54.
- 이영희, 2006a, “북한 개성특급시 역사 문화지명의 유래와 특성,” 한국학연구, 24, 237-268.
- 이영희, 2006b, “지명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



- 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1(3), 283-300.
- 이옥희, 2004,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3), 344-359.
-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 푸른길.
- 이옥희·남영·이기석, 2001, “최근 나진·선봉의 현황과 지역 특성,” 대한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7.
- 이원호, 2005, “개성공단 개발과 월경적 지역 경제 발전 방향의 모색,” 지리학논총, 45, 297-314.
- 이인희, 1986, “8·15와 6·25를 전후한 북한 출신 피난민의 월남 이동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3, 47-68.
- 이장춘, 2000, “통일 한반도 경영을 위한 관광정치지리학적 접근,” 관광정책학연구, 6(1), 7-43.
- 이재하, 1996, “북한의 국토개발과 지역간 경제 격차,” 대한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이재하, 2000, “북한의 지역격차와 균형개발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5(1), 77-93.
- 이 전, 1998, “북한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분석,” 민족통일논집(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4(1), 123-155.
- 이 전, 2005,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일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607-619.
- 이정훈, 2015, “접경지대의 변화과정과 전망: 북한-중국, 미국-멕시코접경지대의 초국경 생활·경제권 형성사례,” 2015년 지리학회 발표논문집, 37-38.
- 이 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 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1984, 8, 68-75.
- 이채문, 2003,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과 러시아인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중국노동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1), 1-23.
- 이희연·홍현철·최재현, 1997,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공간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377-437.
- 임덕순, 1969,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 26-40.
- 임덕순, 1972, “한국 휴전선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8, 68-75.
- 임덕순, 1990, “양독 통일화 동태의 정치지리학적고찰: 관계열강의 입장과 그 변화(1989. 11-1990. 8),” 대한지리학회지, 25(2), 23-34.
- 임덕순, 1996, “한국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95-308.
- 임은진, 2012, “6·25전쟁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장소,” 문화역사지리, 24(2), 155-166.
- 임현진·정영철, 2005, “21세기 통일 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윤정, 2013, 인천상륙작전 영화속 장소 재현: 제작자 포지셔널리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윤정, 2014, “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 대한지리학회지, 49(1), 77-90.
- 정 철·장민청·황희연, 2012, “개성공단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의 인지도 비교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46(1), 67-83.
- 정영철, 2007, “북한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현황과 전망,” 통일학연구원,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 73-87.
- 정은진·김상빈·이현주, 2004,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정치적 환경과 경제기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137-156.
- 정현주·정희선, 2014,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속 정치적 담론과 장소의 재현,” 문화역사지리, 26(2), 83-103.
- 조우현·조영주, 2015, “분단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10(2), 35-63.
- 지상현·Colin Flint,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공간과 사회, 31, 160-199.
- 지상현, 2013,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47(3), 291-301.
- 지상현, 2015, “지정학적 담론과 실천으로서의 반통일 담론의 구성: 한국계 중국인을 사례로,” 2015년 지리학회 발표논문집, 258-258.
- 진중현, 2005,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분석: ‘관광객의 신선’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17(1), 31-46.
- 최병두, 2003a,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을 위한 생태 전략,” 사회과학연구(대구대학교), 2(2), 343-396.
- 최병두, 2003b, “신제국주의, 미국의 신안보전략,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 대한지리학회지, 38(6), 887-905.
- 최병두, 2004a, “국제환경안보와 동북아 국가들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 39(6), 933-954.

- 최병두, 2004b, “미국의 신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경상대학교), 1(1), 166-206.
- 최병두, 2015, “분단 및 통일 담론과 한반도 공간계획: 관계론적 접근,” 2015년 지리학대회 발표논문집, 121-122.
- 최석주, 2003, “북한의 지명-북한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 235-251.
- 최석진·남상준·류재명·손용택·이동엽, 2000, “북한 고등 중학교 「지리」 교과서 분석연구,” 사회과교육, 33, 283-308.
- 최정호·박선미, 2013,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화 영향 요인-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71-85.
- 최정호·박선미, 2014,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의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83-98.
- 최한성·안재섭, 2001,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 대한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
- 하태기, 1993, “북한 초등 사회과교육의 현황-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회과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26, 297-312.
- 하태기, 2000, “남북한 중등학교 지리교육 연구: 교과서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문제연구원, 1997,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 한균형, 1987,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한 북한 쌀 생산량 추정,” 지리학논총, 14, 311-320.
- 한병선, 200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리학습 콘텐츠 개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4(2), 99-104.
- 한봉희, 1993, “북한의 세계지리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26, 161-167.
- 한주연, 2005, “(북한) 환경문제 및 농업침체와 인구변화,” 통일교육연구(한국교원대학교), 4, 70-84.
- 한지은, 2001, “중국 단둥시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11.
- 허 련, 2011,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성과와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46(4), 518-533.
- 허만호, 2014, “산림훼손에 대한 북한정부의 주민통제와 인권협상론의 관점에서,” 2014 한국지역지리학회 발표논문집, 12-20.
- 형기주, 1963, “국토통일-지정학상의 가능성,” 20세기 한국(홍이섭·조지훈 편), 박우사, 170-185.
- 홍 민, 2007, “급변하는 한반도와 통일학(북한학)의 발전 방향,” 통일학연구원,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 89-112.
- 홍 민, 2011,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분단연구,” 동향과 전망, 83, 47-78.
- 홍금수, 2009, “역사지리의 파국적 단절과 미완의 회복,” 문화역사지리, 21(3), 104-138.
- 황만익·이기석, 2005, 북한 산업 지역 재조직 및 개방지역 확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황진태, 2015, “지정학, 안보화(securitization), 자연: 평화의 댐 건설을 사례로,” 2015년 지리학대회 발표논문집, 261-261.
- 황희연, 1999, “통일대비 통합국토정비 정책 방향에 대한 일고,”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95-105.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riss.kr>
- 한국학술정보(주), 홈페이지 <http://www.kiss.kstudy.com>
- 한국연구자정보, 홈페이지 <https://www.kri.go.kr>
- 교신: 김기혁,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hkim@pusan.ac.kr)
- Correspondence: Kim, Ki-hyu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Geumjeong-gu, Busan, South Korea (e-mail: khkim@pusan.ac.kr)
- 최초투고일 2016. 10. 5  
수정일 2016. 10. 24  
최종접수일 2016. 10. 31